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6·3 대선공약 공식 제안

도, 하계올림픽 중심으로 한 초광역 균형발전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 9대 아젠다 담아
“전북, 더 이상 주변 아님 국가전략의 중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을 위해 발간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의 주요 정책라인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전북이 지난 수개월간 기획한 9대 아젠다 74개 핵심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전략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정책형 공약 모델이다.

전북자치도는 총 65조2,000억원 규모의 9대 아젠다, 74개 핵심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전주 하계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균형발전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대한민국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K-초격차 미래산업 육성 △금융도시 구현 및 인재 양성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사통팔달 전북 광역권 인프라 확충 △생태경제 기반의 '2030 그린 전북' 실현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된 만큼, 전북을 중심으로 인근 광역 지자체와의 연계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SOC·산업·문화 인프라를 통합한 대

한민국형 균형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지역 공약건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정책과 연계된 실현 가능한 전략형 공약으로서 정치권과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선 일정에 맞춰 정당, 국회, 대선 캠프 등을 대상으로 아젠다별 대응 전략을 체계화하고,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가비전 프로젝트 제안은 단순한 지역 건의가 아니라, 국가전략과 연계된 실현 가능성 중심의 기획형 공약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예르네이 뮐러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가 초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과 슬로베니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코관광 분야에서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슬로베니아, 지속가능 발전 협력 ‘물꼬’

뮐러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 김관영 도지사와 접견

에코관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 협력 이어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예르네이 뮐러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 일행을 도지사 집무실에서 접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코관광 분야에서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슬로베니아 대사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양국의 생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슬로베니아는 ‘Green Slovenia’라는 국가 브랜드를 내세우며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꿀벌 보호와 양봉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으며, 유엔이 지정한 ‘세계 꿀벌의 날’을 제정한 국

가로서 생태 외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만남이 전북과 슬로베니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삼을 계획이다. 이에 양국의 생태와 문화 자원을 연계한 에코관광 및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이미 고창 운곡습지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을 통해 생태관광 국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다.

전북의 생태관광은 지난 10년간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돼 왔다. 생태마을을 조성, 생태전시·관찰

시설 구축은 물론, 지역주민 주도의 운영체제도 자리 잡았다. 특히 고창, 남원, 장수 등은 생태관광의 대표 지역으로 국제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관광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전북은 도내 에너지 생산량의 7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슬로베니아의 친환경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정책 실현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슬로베니아는 자연과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라며 “이번 방문이 전북과 슬로베니아 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바둑 전설’ 이창호 생가 관광명소화 추진

전주시, 영화 ‘승부’ 흥행에 맞춰 이시계점 노후시설 정비

대한민국 바둑 전설이자 사제지간인 조훈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의 대결을 담은 영화 ‘승부’가 흥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이창호 국수의 생가인 ‘이시계점’을 정비해 관광명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중앙동 전주웨딩거리에 위치한 이창호 국수의 생가인 ‘이시계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관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시계점 앞에 포토존을 마련하고, 이창호 국수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이곳을 새단장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이창호 생가를 흥



전주시 중앙동 웨딩거리에 위치한 ‘이시계점’의 모습. (사진=전주시청 제공)

보할 예정으로, 인근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등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들과 연계해 전주의 매력을 알

리는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이시계점뿐만 아니라 전주 구도심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호 국수는 지난 1975년 전주에서 태어난 세계 바둑의 거장으로, 1986년 입단 이후 최연소 세계바둑대회 우승(16세)을 비롯해 국내외 통산 142회 우승(국제 23회, 국내 119회)을 차지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지난 2003년 모든 국제대회를 제패한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고향인 전주시에서 창단된 프로바둑팀인 ‘한옥마을 전주팀’의 명예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 3개 시군,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 선정 | 남원시·김제시·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도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되며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벽골제를 거점으로 모악산~원광천~동진강~만경강 등 산·

들·강을 지나는 8개의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표지판과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여행상품 개발·시범운영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

완주군은 삼례·소양·고산·동상 등 4개 권역 10개의 코스를 조성하고, 안내표지판과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하고 여행사 연계 패키지 개발, 팸투어, 체험프로그램, 자전거 라이딩 앱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투입해 요천 100리 숲길을 중심으로 총 40km를 구간별 신규 코스를 개발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26

26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2025.4.30-5.9